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무주정착 '요람'

무주군, 올해 수료생 10세대 10명 배출... 10세대 중 5세대 정착 결정

무주군이 도시민들의 무주정착을 위해 마련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도시민들에게 정주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일 2021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수료생 10세대 10명을 배출했다. 안성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된 수료식에는 수료생과 가족, 그리고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행사는 교육과정보고, 수료증 수여식,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값진 경험을 했다"며 "영농재배 방법 외에도 일주민들과의 소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돼 무주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었다"고 전했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7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도시민들의 정주여건과 환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토마토 재배시설 1동(660㎡), 표고버섯 재배시설 1동(170㎡), 그리고



무주군은 지난 1일 2021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수료생 10세대 10명을 배출했다.

고 고구마, 배추, 옥수수, 감자 등 재배할 수 있는 공동경작지 1곳(1,235㎡)에서 귀농귀촌 기초과정, 영농재배 이론 및 실습, 마을탐색 등 총 58회 2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밖에 군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참여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서울시청 또는 무주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해경 팀장은 "올해는 입교생 10세대 중 5세대가 우리 군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집중해서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을 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수료생 31세대 52명 중 지금까지 12세대 24명이 무주군에 정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거점 세척·소독 시설 완공

축산농가 출입 모든 차량 소독 거점시설 본격 가동

장수군은 계남면 호덕리 556-4번지 일원에 위치한 새로운 거점 세척·소독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본격 운영한다.

총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입해 완공한 거점 소독·세척 시설은 건축면적 207㎡의 규모로 무진장축협에서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24시간 상시 운영하게 된다.

차량세척 및 소독실, 대인소독실, 소독통제실, 폐수처리시설 및 전자동소독필름 발급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거점 소독·세척시설은 사료운반, 가축운반, 가축분뇨 등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소독하는 거점소독시설로, 장수C와 접해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췄다.

군은 거점소독·세척시설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축산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가축질병의 전파를 차단해 지역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거점 소독·세척시설 건립을 위해 애쓰신 무진장축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축산농가에서도 개인 농장 소독 등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계남면 호덕리 556-4번지 일원에 위치한 새로운 거점 세척·소독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본격 운영한다.

사랑의 온도탑 200℃ '후끈'

진안군 성수면, 목표 초과 달성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 추진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기호)은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온도탑 200℃ 올리기'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해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면은 사랑의 온도탑을 100℃ 올리기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 100℃ 추가 목표를 설정하고 200℃ 올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사랑의 온도탑 후원은 1인 계좌(월 1만원), 착한가정(월 2만원), 착한사람(월 3만원), 착한가족(월 3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적 후원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 향우회원,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흔쾌히 후원에 동참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이며, 157명의 후원자가 참여하여 10월말 현재 2,600여만원이 모금됐다.

그동안 사랑의 온도탑 후원금을 통하여 추진한 역점사업으로는 행복다리 만들기 사업으로 토방이 높아 나들이가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 주었다. 특히 화재가구의 생활용품 지원, 화장실 및 단열공사 등 집수리 사업을 하였으며,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영양이 풍부한 반찬 전달과 말벗(월 3만원), 착한가족(월 3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적 후원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 향우회원,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흔쾌히 후원에 동참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성수면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현재 201℃이며, 157명의 후원자가 참여하여 10월말 현재 2,600여만원이 모금됐다. 그동안 사랑의 온도탑 후원금을 통하여 추진한 역점사업으로는 행복다리 만들기 사업으로 토방이 높아 나들이가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 주었다. 특히 화재가구의 생활용품 지원, 화장실 및 단열공사 등 집수리 사업을 하였으며,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영양이 풍부한 반찬 전달과 말벗(월 3만원), 착한가족(월 3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적 후원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 향우회원,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흔쾌히 후원에 동참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진안군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

진안군은 지난 3일 '평생학습! 미래를 찾아라'는 주제로 제14회 진안군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은 평생학습의 촉진을 통한 군민의식의 고양, 개인적 삶과 공동체의 변화, 평생교육 참여 주체들의 능력 확대, 성공공유를 통한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문화축제이다.

축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군민들의 소규모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과 수상자가 참석했으며 ▲1부 공식행사로 기념식, 수상자 표창 수여, 축하공연이 비롯한 발표 ▲2부에는 전시, 읍면 권역별 체험부스 운영으로 진행했다.

올해 평생학습 유공 표창 수상자는 평생학습자 부문에 진안을 김이순 외

10명, 평생교육자상 부문 전민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공이 큰 진안을 최동수, 성수면 손병유, 마령면 정광수, 부귀면 박영춘 前위원장 등으로 공로패가 전달됐다.

또한 성인문해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 3명의 어르신에게는 졸업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그 주인공은 초등학교 졸업 이복임(70), 고등학교 졸업 홍순분(73), 이만단(62) 어르신 등 3명이다. 이는 배움에는 노력과 결실이 함께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전춘성 군수는 "축제를 통해 군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도시 진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내년에는 군민들의 심신이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국립산림치유원과 상생 위한 전시·최종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3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상생을 위한 지역연계사업 결과를 전시와 최종보고회를 군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지역연계강화사업은 지역 농·임산물 판매 증진 및 주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치유원 조성에 발맞춰 지역 상생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산골음식 상품화, 지역이미지 브랜드화, 주민 조직화, 생활양식 기초 조사 등 4가지 과제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다수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된 각 사업의 결과물을 전시와 체험행사로 진행했다. 주민들의 생활사를 주제로 한 토크쇼, 물·불·흙을 테마로 한 산골음식 전시, 주민 주도의 협업체 활동 영상 등 사업성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 성과물들을 선보였다.

군은 지역연계사업 추진으로 마을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마을 및 개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마이산홍뱅이 성기상 대표 한국곤충산업중앙회장 당선

진안군은 지난 3일 관내 업체인 (유)마이산홍뱅이 성기상 대표가 (사)한국곤충산업중앙회 제6기 수석부회장 겸 제7기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국곤충산업중앙회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곤충농가와 곤충기반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곤충산업 진흥을 꾀하는 곳으로 농촌진흥청의 인가를 받았으며 정부나 관계기관의 정책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성 대표는 진안군과 신 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홍삼, 곤충, 약용 식물을 활용한 웰스 푸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힘쓰고 있다.

성기상 대표는 "곤충산업은 유용한 자원으로 새롭게 알려지고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주목받으며 곤충자원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농업 소득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향상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곤충산업에 많은 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읍지사협 '장수(長壽) 행복사진 찍는 날' 운영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수, 송재기)는 지난 2일 장수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장수(長壽) 행복사진 찍는 날'을 운영했다.

'장수(長壽) 행복사진 찍는 날' 사업은 관내 노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장수(長壽) 사진과 가족 사진을 촬영 및 제공하는 신규 특화 사업이다.

장수읍협의체 위원들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 협의체 위원 16명이 직접 '적과 작업'을 실시했으며, 촬영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지부장 오영하)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송재기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